

불교는 좋고 신상선원 021)745-8503
011)286-2680 서울 상곡동 성북구
실상선원 041)734-2680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조계종 제11대 종정 법전 스님

추대위 만장일치로 ... 원로회의 의장 도원·부위원장 원명 스님

이달 18일 조계사서 종정추대 법회

조계종 제11대 종정에 법전 스님이 추대됐다. 조계종은 3월 26일 19명의 추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대위원회를 열고 제11대 종정에 도림 법전법사(法傳·法傳)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세수 77세, 법랍 63세의 도림 법전 스님은 1926년 전남 함평에서 출생, 39년 영광 불갑사에서 설제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사미계를 수지하였고, 49년 성철 청담스님과 함께 봉암사 결사사에 참여한 이래 제방의 선원에서 50 하인거를 성만한 불교계의 대표적 선승 가운데 한 분이다. 스님은 85년부터 해인사에 주석해 왔으며, 96년 해인총림 방장, 2000년 원로회의 의장을 맡아왔다. 추대회의 후 조계종 기획실장 현 고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대회의에서 송산 성수스님을 비롯한 추

대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수행 의 길을 걸어온 종단의 큰 어른인 법전스님 추대를 결의했다"며 "부처님오신날이 임박해 있는 만큼 종정스님 추대 법회를 4월 18일 오전 11시 조계사에서 봉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원로회의에서는 원로회의 의장에 도원(파계사 대비암 회주) 스님, 부의장에 원명스님(대구 관음사 조실)이 추대됐다. 수석부위원장 송산스님은 유임됐다. 한편, 조계종 원로회의는 이날 북한산 관봉 서원의각속도로 공사 등

으로 자연환경과 수행 환경 침해와 관련 "영산과 수행환경을 정부가 앞장서서 보전할 것을 촉구"하는 원로회의 유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원로스님들은 유사에서 "전국 명산 대찰을 해치는 개발사업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이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2천만 불자들은 합심하여 민족의 영산과 수행환경을 영위하여 지켜나가는 호법신장으로서 신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원기사 2·3·12·13면** 김원우 기자 www.buddhapa.com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수행자의 가장 절친한 친구는 천장과 벽, 방바닥이나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고 부처님 심화(心化)를 전수했다는 소리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참된 조사인의 정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2·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초과일에 시험 13건 ... 너무하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5월 19일(일요일) 정부산하기관의 각종 자격시험 실시가 불꽃을 이룰 것으로 보여 불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002년 국가자격증 시행계획에 따르면 5월 19일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실기 및 필기시험은 총 13건에 이른다. 이날 실시되는 시험은 리눅스 마스터 1, 2급, M-Commerce 관리자 2급, 정보처리, 정보기

신양하는 '부처님오신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렇게 시험 일자를 몰려잡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축제일이라 해도 무방한 초과일인 시험을 본다 것은 시험을 보는 사람이나, 시험일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고민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처님오신날 집중돼 있는 시험분야는 불교계가 타 종교보다 월등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IT분야. 불자들이 부처님오신날 전에 가기 위해 시험을 거부할 경우 고교의 IT분야 인력 부족현상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할 수 있다. 부처님오신날 시험이 실시되는 것과 관련, 정공진(화사원) 불자는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에서 시험일이 부처님오신날이나 시험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니 '현재로서는 시험일자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 불편하더라도 해당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대답만 들었다. 과연 12월 25일이 일요일인 경우 자격시험을 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불교계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기, 그래픽스 검정시험, 컴퓨터 활용능력 2, 3급, IPCT 1급, TEPS, JPT, NetWork Master, PCT시험 등이다. 또 이날부터 온라인이나 직접 현장에서 가서 집수를 해야 하는 시험도 11건이다. 하지만 성탄절인 12월 25일에는 국가 산하기관 시험이 한곳도 예정돼 있지 않아 종교편향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물론 직장인을 배려하여 일요일 날 시험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 일단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날이 국민의 50%가

아직 시험이 50여일 남아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특단조치가 있기를 고대한다. 김원우(취재1부 차장)



한국의 1번지 조계사가 최근 도림법장불사를 통해 시민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월초 시작된 도림정비사업으로 대웅전 앞마당이 예전에 비해 2배 이상 넓어졌으며, 2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토담을 설치해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조계사는 이달말 도림조경작업을 마친 뒤 일주문 건립 및 대웅전 보수공사, 만불보살건립 등을 통해 수행도량이자 전통거점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사진=고영배 기자

청년불교조직 '수혈' 시급하다

청년 종교의식 조사 지회수 반감·연령층 노령화·이탈자 급증

청년 포교에 적색 등이 커졌다. 조계종 포교원과 대한불교청년회가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실시한 '청년불자 종교의식 설문조사' 결과 96년 284개에 이르던 대불청 지회수가 2001년 124개로 절반이상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불자들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49.4%로 가장 많고, 96년 30세 이하 회원이 70.7%

에 이르던 것에 비하면 5년 동안 신입회원이 들어오지 않아 청년 불자들의 연령층이 노령화 되고, 조직의 감소 현상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결과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의 당면문제에 대해 회원들은 '회원참여저조'(63%), 프로그램 미비(11%), 재정적 어려움(7%)이라고 응답했으며, 청년회에 대한 소속사 참여에 대해 응답자의 31.9%가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 소속 사찰의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회원들의 활동기간은 1년~5년(34.7%), 5년~10년(21.3%), 1년 미만(21%), 10년~15년(14.5%), 15년 이상(8.5%) 등으로 조사됐으며, 활동 5년을 전후해 이탈자가 많았다. 이런 현상은 프로그램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원기사 3면** 김주일 기자 jim@buddhapa.com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조계종 종정

1. 제11대 종정에 법전스님이 추대되었습니다. 새 종정 스님이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정계사 사면을 통한 종단 화합 ②사찰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③승가 교육 제도 보완 ④포교 기반 강화 ⑤승단 수행 풍토 확산
 2. 조계종 종정선출의 임기는 5년(1차 중임가능)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절하다 ②종신제로 해야 ③10년 단임으로 해야 ④기타
- 설문 참여: 4월 4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64호 9면에 실립니다.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대회

10월 28~30일 한국서 ... '인류평화창조와 불법' 주제

제5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간 한국에서 개최된다. 한·중·일 불교대표단은 3월 27일 서울 롯데호텔 피콕 룸에서 준비 실무회의를 갖고 대회의 진행공식을 기원하는 세계평화합동기원법회, 불교환경사건전지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인류평화 창조와 불법'을 주제로 열리는 한·중·일 국제학술강

연회는 각각 1인의 기조연설과 각각 2인의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3국 대표단은 이번 한·중·일 대회에 한국 200명, 중국 60명, 일본 60명 등 총 320명을 참가시키기로 하고 개최장소를 한국 측에 위임키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3국 실무대표 3월 27일 오전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을 예방했다. 김원우 기자



△사리가 들어있는 수경(가운데)과 수경을 보관하는 금곽(오른쪽), 달마바라 스님이 사리를 보관할 목적으로 지냈던 장신구(왼쪽).

부처님 진신사리 1과 조계사 석탑사 발견

조계사는 최근 대웅전 앞 7층 석탑을 이운하는 과정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1과를 발견했다. 7층 석탑 탑신부 두 번째 층에서 발견된 진신사리는 발견 당시 가로 15.8cm, 세로 11cm 크기의 장방형 운합 속에 들어있던 지름 8cm의 원형사리함 안에 보관돼 있었으며, 진신사리는 이 원형사리함 속에 있던 3cm 크기의 수경에 들어 있었다.

진지칼라인등
법당시설유물(경구, 각종유물)
1년 불교전시관, 불교문화유산, 불교, 목기, 불우유물
조계사 사리 상운동상 1과
☎ 02)725-2850 (1F) 佛心院

스님 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스님은 소득이 없어 카드 심사에서 번번이 꺾이 되신다고요?
부다피아 하나 카드는 스님께 우선적으로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

1. 동국대학교 의료원 산하 5개 양·안방 병원에서 진료비 및 중입경진시 5~20%까지 할인
- ▶ 광민대양 병원 - 동국대의료원 [경주병원, 포항병원, 경주안방병원, 문당안방병원, 강남안방병원]에서 1월 17일부터 시행 중
2. 조계종 스님은 물론 다른 종단 스님이라도 부다피아 하나카드를 소지하신 분이든 누구나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3개월 무이자 일부 서비스(5만원이상 구매시)
4. 주유일일 서비스(S-OIL)
5. 무료보험 서비스 - 유일 상해보험, 해외여행보험, 항공상해보험, 통소니안심보험
6.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
7. 스피드카드론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접수된 카드발급 부문에 한해서 적용되며(은행이나 기타 카드(리얼) 제외) 현대 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발급 받은 부다피아 카드용 6개월 이내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5만원 이하는 사용 할일이 있을 경우 700여명이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조여지게 합니다.
● 경영난을 앞둔 소액세미들,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제공됩니다.
● 연립, 교도소 병선 등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필요인 곳에 보시금으로 쓰입니다.
● 결식아동등기 등 아동 재육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여러분이 모여주시는 보시금의 청정을 받들어 기금운용 상황을 현대불교신문 지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합니다.

●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대표 : (02)6678-111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 5동 308번지 현대빌드타워 1115호